

# Barrier Free

## 배리어프리 심포지엄

장벽없는 공연예술의 새로운 길 :  
배리어프리의 역할과 확장 가능성

국립극장

배퍼토리시존

2024-2025

2024.9.28.(SAT) 10AM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사회 : **장승헌**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이사

10:00 - 10:05	개회사	<b>이해준</b>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이사장
10:05 - 10:10	축사	<b>최영묵</b> KIADA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 조직위원장
10:10 - 10:25	기조발제	‘장벽 없는 공연예술 - 해외 사례 중심으로’ <b>엠마-제인 맥헨리</b> 무용음성해설가
10:25 - 10:40	발제 I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무용음성해설 과거. 보다. 미래.’ <b>장현정</b> 오디오작가협동조합 이사장
10:40 - 10:55	무용음성해설 시연	‘돈키호테 그랑 파드되’ <b>주예리</b>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무용음성해설가
10:55 - 11:10	발제 II	‘배리어프리 영화 사례로 본 공연예술계의 배리어프리’ <b>김수정</b> (사)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 대표이사
11:10 - 11:25	발제 III	‘예술현장의 배리어프리 리얼타임’ <b>허영균</b> 공연예술출판사 1도씨와 온도들 대표
11:25 - 11:30	휴식	
11:30 - 11:50	지정토론 및 질의	<b>정이와</b> 정이와 댄스프로젝트 대표 <b>홍혜전</b> 서원대학교 문화예술경영전공 교수 <b>한석진</b>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이론과 조교수
11:50 - 12:00	Q&A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이사장 이해준입니다.

이번 2024 배리어프리 심포지엄의 주제는 <장벽 없는 공연예술의 새로운 길: 배리어프리의 역할과 확장 가능성>입니다. 이는 공연예술이 나아갈 방향과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명확히 짚어주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배리어프리 무용 공연예술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무용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실천 사례를 나누며, 더 포용적이고 접근 가능한 공연예술의 미래를 함께 그려 나가길 기대합니다. 이번 논의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분, 그리고 심포지엄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용예술인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이사장

## 기조발제

# 장벽없는 공연예술 - 해외 사례 중심으로



**엠마-제인 맥헨리**  
Emma-Jane McHenry

무용음성해설가  
스코틀랜드 국립 발레단 교육 담당관 역임  
스코틀랜드 음성해설협회 무용음성해설 훈련  
런던 보컬라이즈 무용음성해설가 활동  
영국 리즈 대학교 브레튼 홀 칼리지 무용 학사

스코틀랜드 국립 발레단, 에딘버러 국제  
페스티벌, 클레어 커닝햄, 캐롤라인 보디치,  
언리미티드 페스티벌 등 다수 무용음성해설  
활동

## DCDC - 2024 국제 배리어프리 심포지엄

**영국에 기반한 음성해설가의 관점에서 본 2020년 이후 무용 음성해설의 발전과 영국, 유럽, 그 외 지역의 배리어프리 공연에서 무용 음성해설이 갖는 위상**

무용 음성해설가로서 2018년 문화올림픽아드 폐막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아르코예술극장에서 열린 김보라, 마크 브루(Marc Brew)의 ‘공·窠·Zero:Restriction, Body and Time’의 무용 음성해설을 맡아 서울을 처음 방문하는 기쁨을 누렸다. 2020년에는 전문무용수지원센터의 요청으로 국제심포지엄 ‘시각장애인을 위한 무용음성해설’에서 발표하는 큰 영광을 누렸고, 심포지엄에서 이렇게 다시 발표를 하게 되어 기쁘다. 2020년을 돌아보면 전 세계는 코로나로 정의되는 도전을 겪었으며, 그 결과 모든 것이 매우 달라 보였다.

그러나 전세계의 공연단과 공연예술페스티벌은 점차 상황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고, 공연예술

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음성해설가로서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다각화를 모색해야 했다.

무용영화에 대한 실험적 시도, 온라인페스티벌에서 발표를 해야 했고 운 좋게도 이 새로운 구도에서 하나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 영화나 온라인 콘텐츠에 무용이 등장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었지만 많은 공연단이나 예술페스티벌에서 음성해설을 포함하는 안을 고려하거나 생각지는 않았었다. 2020년 이후 세상은 계속 진화해 왔으며, 모든 사람을 위한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이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진 가운데, 온라인 콘텐츠 및 영화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성과 책임에 대해 고민하고, 행동에 나서는 공연단이 점차 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갈 길이 멀다 할 수 있겠다.

이제 2020년 이후의 발전 상황을 살펴보겠다. 공연과 경험의 접근성에 관심을 갖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젊은 안무가가 점차 늘고 있다. 이들은 접근성의 당위성에 의문을 갖지 않으며, 접근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다. 경험에 따르면 이들은 접근성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결국 작품은 안무가의 것이며, 이들은 음성해설가가 창작과정과 공연자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이들은 작품과 공연자를 최대한 잘 표현해내고 싶어하며 이는 음성해설가의 입장과 정확히 일치한다. 장비 측면에서도 발전과 진전이 있었다. 음성해설을 제공하는 데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영세 공연단이나 독립 안무가에게 장벽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속기사 마이크와 같은 휴대용 장비를 사용할 수 있고, 장비를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장비의 필요성이 애로사항이 되지 않는다. 휴대용 장비를 사용하면 박물관에서 투어 가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해설가가 여러 명에게 해설을 전달할 수 있다. 속기사 마스크는 마이크 역할을 하지만 소리를 낮춰주므로 해설가가 공연 관람객과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게 해준다. 스튜디오, 소규모 공간, 길거리 공연, 극장이 아닌 공간에서도 해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이는 명백히 발전이자 진보이며, 안무가와 공연단은 음성해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공간에서도 음성해설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해설의 스타일과 내용에 있어서도 발전과 진보가 있었다. 무용 음성해설가들은 무용수의 움직임에 대해 설명하는 등 공연에 더욱 부합하는 해설을 제작하고 있는데 이는 안무가나 무용단의 개방성과 협업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특히 학습장애나 신경발달장애가 있는 관객들이 공연에 대한 이해나 집중력을 유지하는데 음성해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는 터놓고 논의해야 할 때가 왔다. 장애인을 식별하는 데 있어 경계가 모호해졌고,



장애인은 본인이 장애인임을 밝히거나 밝히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음성해설 자체에는 장벽이 없어야 한다.

2024년 스코틀랜드발레단의 릴렉스드/배리어프리 공연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배리어프리 공연과 마찬가지로 음성해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 음성해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가시성을 높이고, 사람들이 음성해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어야 한다. 인식, 장비, 인력 등 사람들이 음성해설에 접근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 우리는 배리어프리 공연에 음성해설을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표지판을 설치하고, 관객이 모이는 곳에서 음성해설을 홍보하고, 헤드셋을 제공하고, 배리어프리 관객과 소통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더 많은 공연에서 음성해설과 배리어프리 공연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 두 요소를 모두 제공하는 공연장과 공연단이 많아질수록 이에 대한 대중의 기대도 커질 것이다.

공연이 열리는 건물과 공연 자체에 이르기까지, 공연에 관계된 모든 사람이 진정으로 배리어프리를 지향해야 한다. 2020년 이후 무용 음성해설가의 역할은 인식 제고, 옹호를 위해 힘쓰고, 인내심을 발휘하는 것일 수 있으며, 필자는 앞으로도 이러한 역할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다수의 공연단의 사고방식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음을 경험했다. 음성해설이 요구에 의해 제공되는 요소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즉 시각장애 관객 수에 연연하지 않고 일종의 모범관행으로서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라는 인식이 생긴 것이다. 이러한 태도가 널리 확산되어 음성해설이 보편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만 2020년 이후 음성해설이 있는 공연이 재개되기는 했지만 양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정체되어 있는 것 같다. 영국에서는 거의 4명 중 1명이 스스로를 장애인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극장산업은 전체 인구의 4분의 1만을 배려하고 있다. 접근성이 제공되는 공연을 살펴보면, 접근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연은 10건 중 3건에 불과하다.(공연 중 한 회차에서만 제공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겠다. 후원자의 요청으로 음성해설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여러 회차의 공연이 진행될 때 단 한 번만 음성해설을 제공하면서 시각장애인/저시력 관객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해설가와 관객은 공연장이 사후대응이 아닌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가능한 한 많은 공연에서 음성해설을 제공하기를 원한다.

음성해설이 예정된 경우에조차 어려움이 있다. 코로나 이후 극장과 공연장이 재개장하면서 음성해설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이해하고, 이를 지원했던 주요 스태프들이 떠났고 이로 인해 시청각 관객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줄어들었다. 공연장에서 스태프를 적절하게 교체하거나 교

육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문제다. 공연 전 터치투어에 대해 생각해보자. 현재 터치투어의 참석자 수가 매우 적고, 과연 사람들이 터치투어에 아직 관심이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코로나 이후 극장이 재개장하고 나서 한동안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터치투어를 제공하는 것을 꺼려하는 상황이 펼쳐졌다. 그러나 상황이 나아졌어도 터치투어의 수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했다. 필자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터치투어의 참가자 수가 감소한 이유는 공연장이 제공하는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것에 기인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과 저시력 관객에게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가? 이는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냥 관객이 나타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관객을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

터치투어는 시각장애 관객이 의상과 소품을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무대에 올라 세트와 무대의 규모를 느껴볼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음성해설가, 공연장 스태프, 다른 시각장애 관객들과 소통하고 자신의 니즈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우리는 그들이 최대한의 지원을 받고, 편안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공연장과 공연단이 시각장애인과 저시력 관객에게 필요한 모든 측면에 대해 고민하고 실행하도록 계속 압박하고, 격려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하고, 설득해야 한다. 영국에서 ‘릴렉스드 퍼포먼스’라고 지칭하는 배리어프리 공연은 제공과 지원의 격차를 메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배리어프리 공연은 모든 사람과 그들의 니즈를 생각하고, 니즈와 지원 측면에서 적극적,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좋은 예다. 모든 사람을 격려하고 환영하는 배리어프리 공연에서는 누구나 좀 더 편안하고 느긋한 환경에서 일부 요소를 강화하거나 톤 다운하여 공연의 경험을 더 즐길 수 있다. 배리어프리 공연은 환경이 너무 부담스럽거나 니즈에 안 맞는 사람들을 환영하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특히 신경발달장애, 학습장애, 지체장애, 치매, 파킨슨병, 불안장애가 있는 관객이나 아기와 함께 참석하고자 하는 관객이 떠오른다.

배리어프리공연은 장벽 없는 모든 사람을 위한 공연이며,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 없다. 과거에는 배리어프리 공연이 음성해설이 있는 공연과 별도의 개념이었고, 배리어프리 공연이 너무 과하거나 니즈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느낌이 있었지만 점차 상황이 바뀌고 있다. 필자는 음성해설이 배리어프리 공연의 훌륭한 멜팅팟으로서 기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모든 (또는 가능한 한 많은) 장벽을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다.

스코틀랜드 발레단은 2024년 1월 겨울시즌에 ‘신더스!’를 제작하면서 이러한 시도를 했다. 처음으로 라이브 음성해설을 도입한 것이다. 음성해설과 BSL 통역 외에도 공연 관람을 위한 많은

요소를 고려했다. 충분한 스탭을 배치하고, 공연 45분 전에 공연장을 오픈하고 (관객들이 서두르지 않도록), 공연장 내 소음과 이동을 허용했으며, 공연장 조명의 조도를 절반으로 낮추고, 무대에서 등장인물의 소개가 이루어졌다. 스트로브 조명이나 큰 소음이 없었고 관객들이 공연을 놓치지 않도록 휴게공간에서도 생중계가 이루어졌다. 휠체어를 공간도 마련되어 있었고, 귀 보호대도 비치되었다. 필자에게는 하나의 의문이자 의견이 있다. 이 특별한 공연은 짧게 각색되었는데, 그 이유는 공연시간을 줄이고 공연을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 혜택을 누렸겠지만, 전체 공연을 경험하고, 필요할 때 일어나서 공연장을 떠날 수 있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릴렉스드/배리어프리 공연에 음성해설을 포함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했지만, 기존 공연에도 음성해설이 제공되었다는 점도 똑같이 중요하다. 릴렉스드/배리어프리 공연에서 음성해설은 ‘대안적 요소’가 아니라 ‘부가적 요소’였다. 음성해설이 시각장애인/저시력 관객을 위해 제작되지만, 많은 사람이 이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이로 인해 혜택을 누려 왔다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되었다. 시각장애인이 모두 신분을 밝히는 것은 아니며, 음성해설의 도움을 받아 공연을 이해하거나 단순히 집중력을 유지하는 사람이 많을 수 있다. 특히 학습장애나 신경발달장애가 있는 관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제는 터놓고 논의해야 할 때가 왔다. 장애인을 식별하는 데 있어 경계가 모호해졌다. 그리고 장애인은 신분을 밝히거나 밝히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음성해설 자체에는 장벽이 없어야 한다.

## 기조발제

# Performing art without barriers - Focusing on overseas cases



**Emma-Jane McHenry**

Dance Audio Describer  
 Former Education Officer, Scottish Ballet  
 Trained in Dance Audio Description at the Scottish Audio Description Association  
 Active Dance Audio Describer for VocalEyes, London  
 Bachelor of Arts in Dance, Bretton Hall College, University of Leeds, UK

Extensive experience in providing audio description for dance performances, including with Scottish Ballet, Edinburgh International Festival, Claire Cunningham, Caroline Bowditch, Unlimited Festival, and various other prominent events and artists.

As a dance voice interpreter (Audio Describer) I first had the delight in visiting Seoul in 2018, Audio Describing for Bora Kim and Marc Brew in the Arco Arts Centre, Zero Restriction, Body and Time, as part of the closing programme of the cultural Olympiad. In 2020, I had the great privilege of being asked by the Dancers Career Development Centre to present at the “Dance Voice Commentary for the Visually Impaired” at the International Symposium in 2020 and it’s a real joy to be asked to present again as part of the “2024 Barrier Free symposium. Let’s cast our mind back to 2020, the world was a challenging place……. heavily defined by Covid 19. And as a result, everything looked very different. Gradually companies and performing Arts festivals the world over began to look at things differently and see just what they could



do to keep the flame burning for the performing arts, and I as a Describer had to develop and diversify. Experimentation in dance films and presenting festivals online became a necessity and I was very fortunate to be offered a place in this new landscape. The existence of dance in a film or online content is not new of course but the inclusion of Audio Description was something not considered or thought of by many companies and Arts Festivals.

Since 2020 the world has continued to evolve and making everything as accessible for all is even more important and expected, companies are beginning to think of and act on the need and responsibility to have accessibility imbedded in their online and film work however there is much still to do. So, let's look at the developments since 2020. Many more, and younger choreographers are becoming interested in and committed to accessible performances and experiences. They are not questioning 'if we should do it' but saying 'we should be doing it'. It is my experience that they have a keen interest, it is their work after all, they are open about allowing Describers access to the creative process and performers. There is a feeling and desire to best represent the work and the performers in their work, this is very much in line with the needs and desires of a describer. Another development and progression could be seen in terms of equipment. Equipment needed to deliver Audio Description has been in the past a barrier to smaller companies and independent choreographers. This needn't be the case now as portable equipment and Stenographers Microphones can be used, and equipment is more readily available. Portable equipment allows Describers to deliver descriptions to a group of people (such as a tour guide in a museum). A Stenographers mask acts as a microphone but quietness the sound and allows a Describer to be in the same space as the audience watching the performance. It is a game changer, it opens the opportunity for descriptions to happen in studios, small spaces, promenade performances and non-theatrical spaces. Without a doubt this is development and progression, they allow choreographers and companies to have audio description in spaces where it was perhaps not thought possible. Another area that I can see development and progression is in terms of the style and content of descriptions. Dance describers are producing work that is more in keeping with performances, a description of how the dancers are moving, that this is only possible due to an openness of the Choreographer and or dance company and a willingness to collaborate. It has been my experience that there has been a slight shift by many companies in terms of thought processes. A shift from providing audio description by demand to providing description because it should be a necessity. In other words, not being concerned about VI audience numbers but as a service that should be provided by way of best practice. This is an attitude that I hope prevails and increases in commonness. However, it seems that since 2020 although, Audio Described performances have come back and are continuing, there seems to be a bit of stagnation in terms of the amount of Audio Described performances.

Almost 1 in every 4 people identify themselves to be disabled in the UK, the theatre industry is representing and looking after only a quarter of the population. When you look at accessible performances in general, there are only 3 in every 10 performances that offer an access service (often one performance in the productions run.) So, there is clearly still much to be done. It's not enough to have an Audio Described performance because a patron has asked for one and it's not enough for just one performance to be audio described in a run of performances, Is this really catering for Visually Impaired/low vision audiences? Describers and audiences need venues to be pro-active not re-active, to push for as many described performances as possible. There are also challenges even when Audio Described performances are scheduled. Since the reopening of theatres and venues post Covid, key staff have left positions, staff that supported and understood what it takes to provide Audio Description, less care and support of a VI audience. In some cases, venues are choosing not to replace or train staff appropriately and this is a challenge. Thinking about Touch Tours prior to performances. The number of attendees is often low and there are questions about whether there is an interest in them anymore.

For some time after the theatres reopened (post pandemic) there was a reluctance to provide Touch Tours due to the need to keep everyone safe but as things relaxed the numbers for Touch tours didn't pick up to pre-pandemic levels. In my experience the fall in numbers may be due to a lack of information or accuracy of information provided by venues, is information getting to visually impaired/low vision audiences? This is something that needs to be checked and continually maintained, we can't simply expect audiences to appear. Work needs to be done to generate and maintain our audiences. As well as letting VI audiences feel costumes and props, Touch Tours often provide an opportunity to be on stage and get a sense of the set and scale of the stage environment, and importantly a chance to engage with the Audio Describer(s), venue staff and each other and a chance to express their needs. We should be doing everything in our power to make their experience as supported and as comfortable as possible. So, we need to keep the pressure on, encouraging and informing, supporting, and persuading venues and companies to think and act on every aspect that may be needed for their visually Impaired and low vision audiences. One area that might help to cover the gaps in provision and support is that of Barrier Free performances or Relaxed performances as they are more commonly called in the UK. Performances such as these are a great example of thinking of everyone and their needs, being pro-active and pre-emptive in terms of needs and assistance. Performances that encourage and welcome, anyone that would benefit from a more relaxed or informal setting, live theatre with some elements enhanced or toned down. So, creating a welcoming space for those who may find the environment overwhelming or simply not catering to their needs. I am thinking specifically of audience members who are neurodivergent, have a learning disability, physical disability, dementia, Parkinson's, anxiety, would like to attend with their babies.

There are no barriers as to who these performances are for. No checks to make sure you qualify.

These barrier free performances had always in the past been separate to Audio Described performances, there was a feeling that a barrier free performance may be too much or that it blurred the lines in terms of needs, but gradually this has changed. It is my feeling that Audio Description should indeed be part of this wonderful melting pot of a barrier-free performance, we are after all trying to eradicate all barriers (or as many as we can)

This is something that Scottish Ballet tried in their Winter Season in January 2024 with their production of Cinders! For the first time they had live Audio Description. In addition to Audio Description and BSL interpretation, they thought of many elements to navigate the performance: Plenty of staff, the house open 45 minutes before (people not rushes out), noise and movement allowed in the auditorium, house lights at half, introducing character from the stage, no strobe or loud noises, breakout spaces with a live stream so people could still follow, wheelchair spaces, ear defenders. I would have one thing that I would like to offer up as a question or thought. This particular performance was shortened and adapted, The reasoning behind this was to make it shorter, easier to understand. Many would benefit from this, but some may also prefer to experience the whole production and be able to get up and leave if needed? It was so important to me that Audio Description was included in this relaxed/barrier-free performance but equally…… that there was a traditional Audio Described performance on offer for audiences, which there was. AD in the relaxed/barrier-free performance was not an instead of but as well as.

For some time, it has been apparent to me that although I create Audio Description for a Visually Impaired/low vision audience it is something that many people can and have benefit from. Not everyone identifies as being Visually impaired, there are many people where AD could be helpful in terms of their understanding of a performance or simply to keep them focussed, I'm thinking particularly of those with a learning disability or are perhaps neuro divergent. It is perhaps the time to open things out, lines are blurred in terms of identifying, disabled people are entitled to identify or not. Audio Description itself should be barrier free. This was confirmed by the Scottish Ballet relaxed / barrier free performance in 2024. What we need to do is to make sure Audio Description is available for all who think they would benefit from Audio Description, just like the Barrier-free performance it self.

Visibility is needed, people need to be made aware there is Audio Description and take away any barriers to it, whether that's to do with awareness, equipment, staffing. We need to work to include Audio Description into Barrier free performances, support the delivery of this in barrier free environment through being visible for example signage, be where the audience gather, offer headsets, engage with the barrier free audiences. Above all encourage more Audio Described performances and Barrier free performances, the more venues and companies deliver both elements the more the public will come to expect them.

All involved need to truly aim to be barrier free, this is in terms of both the buildings the performances are in and the performances themselves. A Dance Voice Interpreter's role post 2020, may also be one of imparting awareness, advocacy, and tenacity and this is something that I will be carrying forward.

## 발제 I

#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무용음성해설 과거. 보다. 미래.



### 장현정

오디오작가협동조합 이사장  
화면해설작가협회 초대회장  
화면해설작가 25년 프리랜서 활동  
화면해설 전문작가 양성교육강사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무용음성해설  
실연공연 총괄

처음 화면해설이 도입됐을 때, 일부 시각장애 당사자들은 회의적이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영상을 ‘모두’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그다지 기대되지 않는다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25년이 지난 지금, 화면해설은 장애를 넘어 많은 이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거듭나고 있다. 화면해설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가능’, ‘불가능’ 여부를 타진하기보다, 무조건 ‘필요함’에 충족될 영상언어를 개발하고 실험하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해 왔기 때문이다.

그에 비하여 ‘무용공연 음성해설’의 역사는 이제 5년여에 이르고 있다. 이제 막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출발선의 주자는 신호탄을 기다리며 잔뜩 긴장하지만, 이미 출발한 주자는 돌아볼 겨를 없이 목표지점을 향해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래서 ‘무용공연 음성해설’이라는 주자가 좀 더 박차를 가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실무자이며 교육자인 입장에서 짚어보고자 한다.

### ① 전문가 양성 교육

무용은 전문적 특수성을 가진 분야이므로 무용공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무용 관련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음성해설은 대본을 미리 준비해야 하기에 기본 글쓰기 교육이 필수과정으로 포함된다. 이 글쓰기는 하루아침에 숙달되는 것이 아님에도 현재의 교육은 단기 속성 과정으로 매우 다급하게 교육생을 배출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좀 더 체

계적인 커리큘럼을 수립해, 단계별 성장 코스에 맞춘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다.

### ② 연구와 모니터

어떠한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 지침이 필요하다. 즉 ‘가이드라인’이 정립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무용공연 음성해설’서비스는 고작 5년 남짓, 그나마 공연에서 직접 시행한 횟수도 매우 적다. 그러다 보니 ‘화면해설’서비스의 가이드라인에서 필요한 항목만을 간추려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외의 자료를 더 많이 수집하고, 시각장애인 당사자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무용공연 음성해설’의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③ 전문가로서의 가치 인정

우리나라에서 ‘복지’라는 이름으로 시행되는 서비스에서 매우 취약한 부분이 있다. 바로 해당 서비스를 하는 실무자에 대한 가치 평가가 현저히 낮다는 것이다. 남들이 가지 않는 어려운 길을 가는 이들에겐 ‘명예’외에 현실적 예우가 뒷받침 되지 않는다. 이는 전문성을 가지 실무자를 지치게 하고, 사업을 오래 이끌어가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단지 ‘특이하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리적으로도 만족감을 주는 ‘전문가’로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참여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 ④ 폐쇄성 타파

국내의 ‘화면해설’을 비롯한 오디오해설 서비스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폐쇄성’이다. 가장 먼저 시작하여 다양한 정보와 경험을 보유한 이들은 ‘내 것’이라는 아집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후발주자는 선발주자가 실패했던 전철을 고스란히 밟으며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여기에 저품질의 서비스를 내놓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니, 사용자에겐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어떤 특정한 기술력을 공개한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이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나, 보다 나은 방법을 발견할 기회는 될 수 있다.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범한 정보교류가 매우 필요하다.

이 밖에 꼭 무대 공연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인 사용자의 접근성이 좋은 ‘유튜브’ 등을 활용해 더 많은 이들이 ‘무용’이라는 문화콘텐츠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면 좋겠다. 이미 해외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무용공연 음성해설’은 이제 시작 단계이므로 좀 더 과감한 시도, 새로운 시도를 해보며 사용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방법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



## 발제 II

# 배리어프리 영화 사례로 본 공연예술계의 배리어프리



**김수정**

(사)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 대표이사  
(사)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 창립멤버  
한국시네마테크협의회 서울아트시네마 운영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는 매해 11월에 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를 열고 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는 2011년 '배리어프리영화포럼'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하였다. 배리어프리라는 용어가 아직 생소한 시절이라 '배리어프리란...'으로 모든 인터뷰와 이야기를 시작하곤 하였다. 물론 배리어프리영화 제작을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가 처음 시작한 것은 아니다. 그 이전에 한글자막, 화면해설 영화라는 긴 이름으로 불리었고 제작은 장애인 당사자 단체에서 하고 있었다.

그럼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는 왜 용어부터 새롭게 정의하며 시작하였는가? 영화를 전공하고 영화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배리어프리영화는 영화인들이 장애인 관객을 위해 당연히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위원회는 기존의 복지적 관점에서 진행되었던 한글자막, 화면해설 영화의 제작을 영화적 관점에서 배리어프리영화를 제작하고자 하였고 그래서 배리어프리영화라는 용어를 새롭게 사용하였다. 영상만으로 혹은 소리만으로 영화를 볼 때도 가급적 온전히 영화를 즐길 수 있는 배리어프리영화를 만드는 것이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의 제작 방침이다.

위원회는 늘 배리어프리영화에서 장애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에 방점을 찍고 있다. 초기에 배리어프리영화를 설명하면 장애인영화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더욱 장애에 상관없이 함께 보는 영화라는 설명으로 특정 장애를 지칭하기 보다는 영화를 함께 즐기자는 의미로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가 배리어프리 영화를 처음 한국에서 사용한 이래, 공연계, 미술계 등에서도 배리어프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배리어프리공연과 배리어프리 전시도 많아졌다. 하지만 일반 공연과 전시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위원회는 설립 초기부터 배리어프리 영화의 동시성을 강조하였다. 개봉한 이후 2-3주가 지나야 볼 수 있는 현실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위원회를 설립하기 전 2010년 일본 사가배리어프리영화제를 방문하였을 때 접한 일본 배리어프리영화 캠페인 구호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였다. 비장애인인 나에게는 보고싶은 영화를 편한 극장을 골라 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지만, 애초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관객이 있다는 현실을 그제서야 인식한 것이다.

일본은 2016년부터 앱으로 일반 극장에서 개봉 영화의 음성해설과 자막을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많이 늦었지만 우리나라도 올해 음성해설을 시작으로 앱을 이용한 영화관람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이제 배리어프리 영화는 보다 많은 영화들이 장애에 상관없이 원하는 극장에서 볼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 지원으로 넘어가야 되는 시기에 왔다.

영화에 비해 배리어프리공연은 늦게 시작하였지만 현장의 관심도는 영화보다 뜨거운 것 같다. 방법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는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하여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한다.

누구나 원하는 공연을 원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날을 기대한다.

### 발제III

## 예술현장의 배리어프리 리얼타임



### 허영균

기획자, 드라마터그, 공연예술기획/  
출판사 1도씨와 온도들 대표  
리서치밴드 NHRB의 공동 운영자

#### 1.

가까이 볼 때는 연극, 때때로 무용, 가끔은 시각예술에서... 그러나 멀리 봤을 때는 퍼포먼스를 기반하거나, 통과하거나, 지지하며 벌어지는 모든 일에 관심을 갖고 기획자, 드라마터그, 출판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된 것은 아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출판사(2014년부터 2023년까지는 출판사였으나, 2024년부터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획 콘텐츠를 제공하는 회사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1도씨와 온도들에서 최근에 배리어 프리에 관한 책을 출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책의 제목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This is what we think>이고, 부제는 오늘의 발제의 제목과 같은 ‘예술현장의 배리어프리 리얼타임’입니다. 이 책은 두 명의 시각장애인 장근영, 이성수가 썼습니다.

약 2년 전,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지원을 받아 배리어 프리에 관한 리서치를 수행하던 장근영, 이성수 그리고 해당 프로젝트의 피디를 맡은 성다인 님이 저를 찾아와 전자책의 형태로 해당 내용을 기획하고, 출판할 수 있을지 물어왔습니다. 한 시간 남짓 회의가 끝났을 무렵에는 본래 사업이 해야 할 전자책뿐만 아니라 오디오북 그리고 1도씨와 온도들에서 정식 출판까지 하기로 일이 커져 있었습니다. 필자 두 분이 배리어프리 자문가로, 배우로, 연출로 활동하고 있는 당사자라는 점에서, 해당 프로젝트의 프로듀서가 접근성매니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 작성되지 않은 이 책에는 지금 이 시점이 아니면 안 되는 이야기들이 담길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 2.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는 두 시각장애인이 경험한 공연, 전시를 중심으로 기록한 문화예술계의 배리어 프리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공연)예술계가 또 한 시절을 지나 배리어 프리 또는 접근성이라는 당대의 이슈를 맞이하고, 관련한 논의, 필요, 당위성과 정당성과 그 방법, 방식, 지원에 관한 논의들이 시작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해서, 지금의 논의들은 우리 예술계가 배리어 프리를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아주 초기의 것들에 해당할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최근 문화예술계에서는 ‘배리어 프리’라는 용어 대신에 ‘접근성’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배리어 프리라는 용어를 한국과 일본에서만 사용한다는 점, 배리어 프리가 특정 장애를 지나치게 부각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배리어 프리라는 용어의 사용 빈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있어 몇 가지 생기는 의문도 있습니다. 제공되는 서비스와 행위 자체는 그대로인데, 용어만을 교체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배리어 프리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던 서비스의 단점을 보완할 만한 실천은 뒤따르고 있는 것일까요? 현실에는 엄연히 존재하는 ‘배리어 Barrier’로부터 ‘프리 Free’ 해지자는 말 자체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이 작업은 접근성에 관해 보다 근본적인 질문들을 제안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독 튀는 장애인 화장실, 넓은 계단 한쪽 구석에 간신히 위치한 경사로, 시각장애인의 이동을 도와주겠다며 기차놀이를 하듯 줄지어 따라오라는 요구, 공연 전 터치투어에 참여하는 시각장애인을 수십 명의 스태프와 관계자들이 신기한 듯 구경하는 행위 등. 현재 이루어지는 배리어 프리 혹은 접근성의 모습에서 우선적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3.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몇 가지 챕터와 문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트 1의 ‘다시 관객 되기’라는 부분입니다. 시각장애인이 된 후, 처음으로 대학로 공연장을 찾은 필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들이 어떻게 공연에 관한 정보를 얻으며, 그것을 예매하고, 공연장에 찾아가서, 자기 자리를 찾아 앉고, 작품을 감상하고, 극장에서 빠져나오는지에 관해 아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음 온라인, 서울문화재단 등에서 발행하는 웹진, 대학로극장 퀴드, 국립극장, 국립극단, 아르코예술극장, 두산아트센터 등 극장 홈페이지의 장애인 접근성에 관해서도 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연 그 자체를 감상하고 이해하는 것에만 배리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연 자체에 대한 정보, 접근, 예매를 비롯하여 실



제 공연장에 가는 접근성까지도 총체적인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미술관에 관한 에피소드에서 등장하는“나도 환대 받고 싶어!”라는 문장입니다. 공연장도 그렇지만 미술관에 가면,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이 시각장애인 관객 자체를 너무도 낮설어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태도가 느껴진다고 합니다. 자신 몫인 티켓도 같이 온 친구에게 건네는 것은 물론이고, 관람 안내 또한 동행한 사람에게만 전달하는 거죠. 그 순간 이들은 함께 공연/전시를 보러온 친구가 아니라 보호자와 장애인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연장과 전시장을 찾는 이유에 대해 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궁금해서 왔지. 내가 뭐 볼 거 없나 하고!”

4. 우리 사회는 장애를 의료적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그렇지만 특히나 예술에 있어서는 장애는 사회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적 관점으로 본 시각장애의 정의는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시력과 시야 등 시각 기능에 손상을 입은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장애는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정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의 정의는 장애의 원인을 개인이 갖고 있는 손상의 문제로 인식하는 의료적 관점에 의한 정의입니다. 한편, 사회적 관점은 장애의 원인을 장애인이 살고 있는 사회환경에서 찾는 관점으로 장애인이 겪는 사회적 배제에 장애의 원인이 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의료적 관점이 아닌 사회적 관점으로 장애를 바라본다면 시각장애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들어 온 사회적 관점에 의한 시각장애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양한 시각적 특성을 가진 이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사회환경에 의해 오랫동안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동등한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를 의료적 관점에 의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장애인의 정의는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의 사회는 아직도 모든 영역에서 장애를 개인이 갖고 있는 손상의 문제로 인식합니다. 그렇기에 비장애인을 정상으로 장애인은 비정상으로 사회는 바라봅니다. 이에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의해 보호받고 도움 받는 의존적인 존재로 인식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 오랜 기간 길들여져 왔습니다.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이 낯선 길을 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안 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길이 비시각적인 방법을 이용해 갈 수 있는 접근성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이 비시각장애인과 소통하기 어려운 이유는 눈이 안보이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

가 다른 감각으로 소통하기 때문이고, 서로가 소통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시각장애인들이 공연을 보기 어려운 이유는 장애인들이 공연예술에 접근할 수 없는 환경과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장애를 개인의 문제 비정상적 문제로 바라보는 기존의 사회 관점에서 벗어나 우리는 우리 사회의 환경과 인식을 바라봐야 합니다. 누군가 사회 안에서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 의존을 선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먼저 사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가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과 인식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5.

우리 사회는 비장애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을 도움받는 존재, 시혜적 존재로 인식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관점이 우리 사회에서는 너무 익숙하고 당연하죠. 법조차도 그렇습니다. 예술계 역시 지금까지 이미 우리 안에 당연한 것이었어야 했을 배리어프리의 개념을 숨 가쁘게 쫓아가고 고민하고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접근성 부분도 마찬가지로, 접근성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마치 선행을 하는 것, 좋은 일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장애를 의료적 관점으로 이해하고, 배리어프리를 시혜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순간, 여기서 나타나는 한계는 바로 그 선행과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는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으면서, 다른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 태도, 나아가 기분까지 바뀌는 경우들을 보았습니다. 눈이 보이든 보이지 않던 우리의 환경 속에서 누구나 자신의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길을 안전하게 걸을 수 있어야 하고, 공연을 볼 수 있어야 하며, 카페에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책에 담긴 두 사람의 이야기는 결코 모든 시각장애인의 생각과 경험을 대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책이 어느 당사자의 이야기로서 분명 누군가에게 유의미한 부분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당사자들의 주체적인 목소리가 사회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 책과 프로젝트는 그 목소리의 하나로서 존재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의 장애인 문화향유 접근성 문제는 그들 개인이 해결할 대상이 아니라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 모두가 함께 부딪혀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무용음성해설 시연자

시연작품 돈키호테 그랑 파드되



### 주예리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무용음성해설가  
2023 오페라 <나비부인> 출연  
2022 연극 <내 눈이 멀면> 출연  
2021 무용극 삼성무용단 <제국의 아침>  
밀양검무 <검무>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 대학원 무용학과 수료

## 사회자



### 장승헌

공연기획자  
(재)전문무용수지원센터 이사  
춘천공연예술제 예술감독

## 지정토론 및 질의



### 정이와

정이와 댄스프로젝트 대표  
이화여자대학교 강사  
이화여자대학교 무용학 박사



### 홍혜진

서원대학교 문화예술경영전공 교수  
서원대학교 문화예술교육센터 센터장  
홍댄스컴퍼니 & 춤추는 은평재활원 예술감독



### 한석진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이론과 조교수  
한국무용예술학회 부회장  
댄스&미디어연구소 부소장  
대한무용학회 편집위원  
한국무용학회 편집위원  
한국춤비평가협회 준회원

공동주최



(재) 전문무용수지원센터  
DANCERS' CAREER DEVELOPMENT CENTER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극장

주관



(재) 전문무용수지원센터  
DANCERS' CAREER DEVELOPMENT CENTER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